


우리들의 부마 197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1979년 10월 어느날, 민희네 가족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979 #우리들의 부마

목 차

우리들의 부마, 1979

1. 만화로 만나는 부마민주항쟁
2.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3. 부마민주항쟁과 친해지기

- 활동 1 부마민주항쟁 길을 따라서
- 활동 2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 활동 3 역사신문 만들기
- 활동 4 친구에게 '부마민주항쟁' 소개하기
- 활동 5 인물의 생각 파헤치기
- 활동 6 그림으로 생각하는 부마민주항쟁



| 글 | 손언희(김해 화정초등학교), 문재경(부산진초등학교)
| 그림 | 최승춘
| 검토 | 김민수(부산 남산고등학교), 구준모(부산 부경고등학교)
| 감수 | 김선미(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박영주(경남대학교박물관 비상임연구원)
| 디자인 · 인쇄 | 디자인후 051-852-2512
| 발행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9, 10층 051-468-1016
(51729)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41, 4층 055-265-1018
| 홈페이지 | www.buma1979.or.kr

1979년 10월의 어느 날

이모는 왜 대통령 각하가 잘못했다고 말할까?



엄마와 막내 이모가 말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된 점을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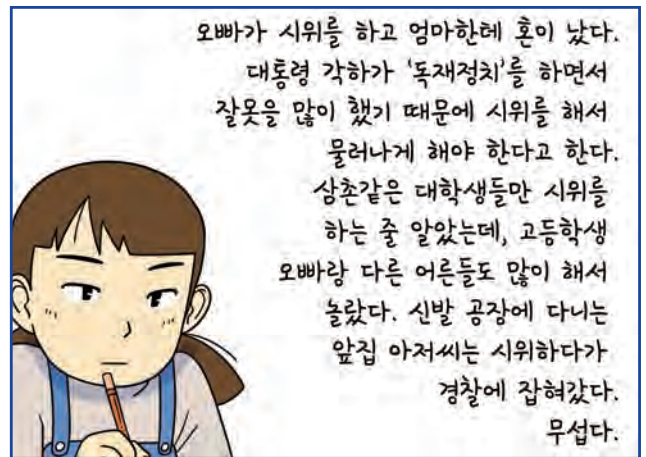
1979년 10월 16일 대학생 막내 삼촌이 시위를 하고 밤늦게 들어와 할머니한테 혼이났다.



할머니가 시위하는 삼촌을 말리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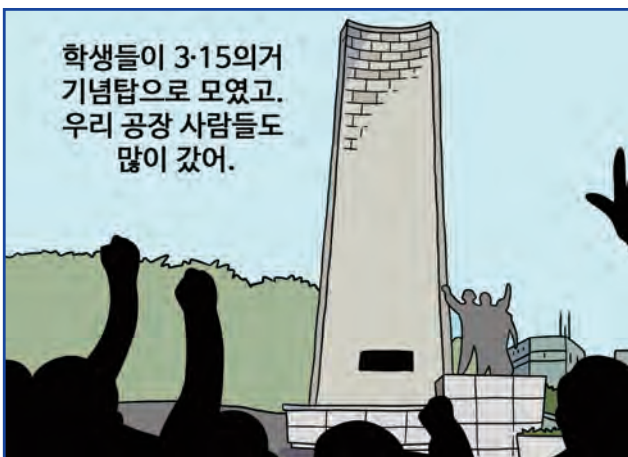
1979년 10월 17일

고등학교 2학년 오빠도 시위를 하고 들어왔다. 독재는 왜 나쁜 걸까?



민희 오빠와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1979년 10월 18일 왜 마산 큰 이모는 울며 전화를 했을까?



10월 18일 마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해봅시다

1979년 10월 19일 마산 작은 이모는 왜 계속 시위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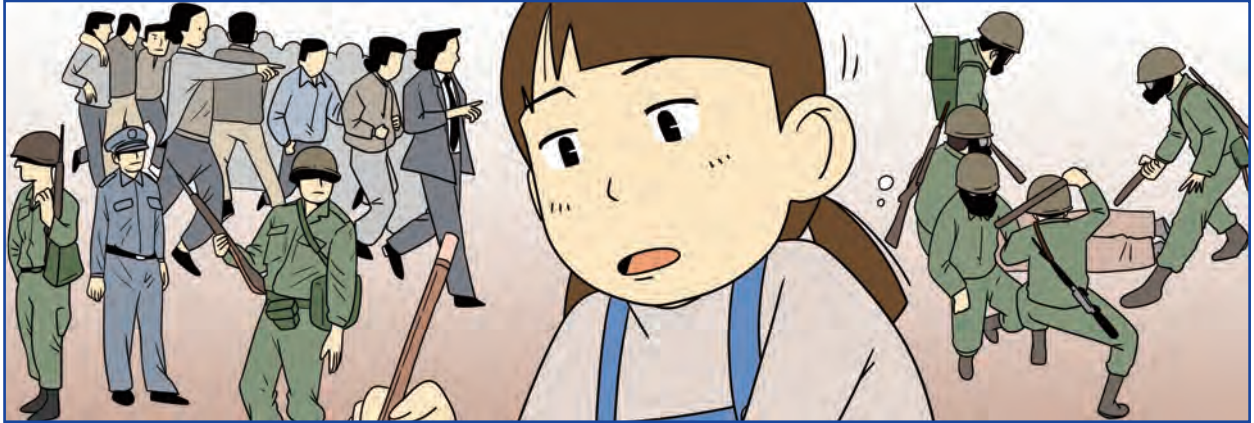
마산의 시위대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을 말해봅시다.

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8년 전 그날, 삼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역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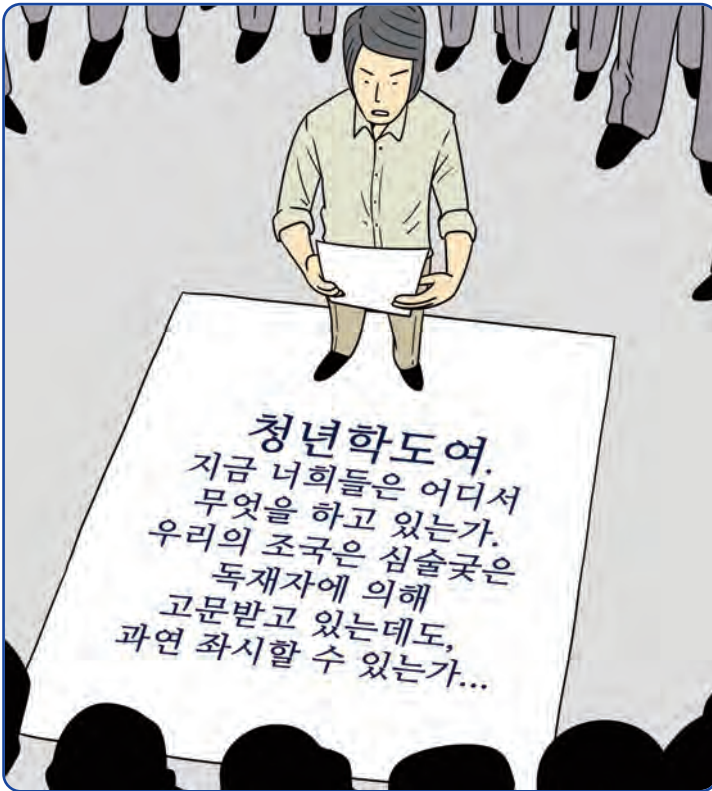
1979년부터 이어진 민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민희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 봅시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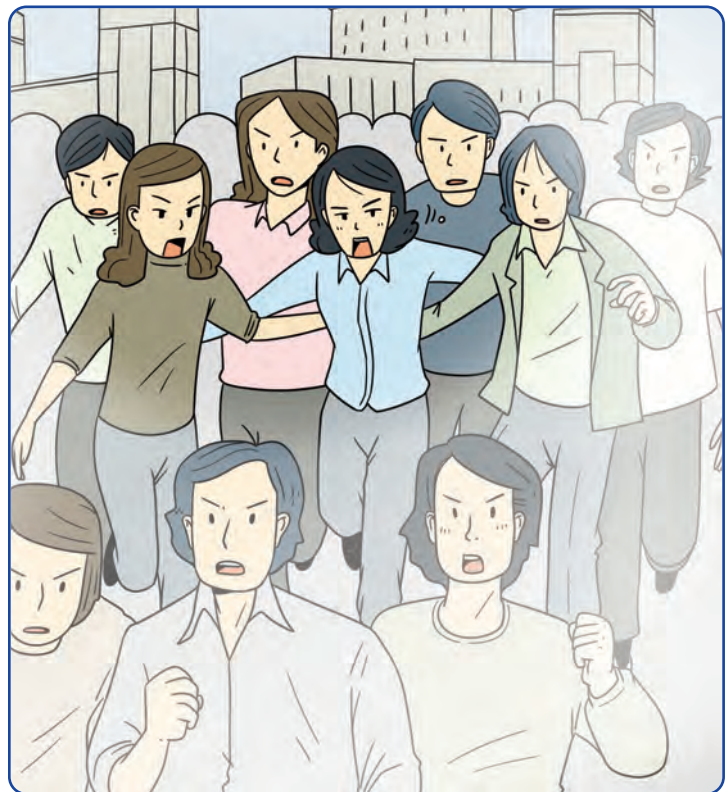
년 월 일

어떤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했을까?



1979년 10월 16일 오전, 부산대 학생 한 명이 선언문을 나누어주며 외쳤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시위에 참여한 부산대 학생들은 ‘자유’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우리의 소원은 자유’라는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수십 명에서 시작한 시위대는 2,000여 명이 되었다. 대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운동장을 달리며 구호를 외쳤다. 교문 밖으로 나선 대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시청으로 향했고 시민들도 참여하였다. 부마민주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산의 경남대 학생들도 부산 시위 소식을 들었다.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은 교내 시위를 시작했고 학교 밖으로 나가 시민들과 합류했다. 이 때, 두 명의 여학생이 우왕좌왕하던 시위대를 줄 세우고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학도여!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그 순간 경찰이 두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챘다. 남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구하려고 했고 시민들도 달려들었으나 두 사람은 잡혀갔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을까?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자 신문기자는 서둘러 시위현장으로 나갔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위가 커지자 군인과 경찰들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신문기자도 끌려가서 폭행 당하고 카메라도 빼앗겼다. 하지만 그전에 사진필름을 몰래 양말 속에 넣어 숨겨두었다. 그 사진필름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록한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마산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4명의 친구들은 자취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큰 함성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대 뒤쪽으로 경찰이 나타나 시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였다. 4명의 친구들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눈뜨고 볼 수 없어 경찰들을 말했다. 이틈에 시민들은 달아났다. 이후 4명은 시위대에 합류하였으나 총소리를 듣고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쫓아온 경찰들이 4명을 잡아갔다.

시민들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까?



부산에서 시위가 계속되던 때, 한 고등 학생은 친구 생일파티를 하러 남포동에 갔다. 친구들과 놀고 돌아오는 길에 남포파출소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 시위대가 한 일이었다. 불구경을 하던 고등학생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경찰은 때리면서 불 지른 것을 자백하라고 하였다. 물고문까지 받은 고등학생은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 고등학생은 39년이 지난 2018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은 강하게 진압하였다. 시위대와 시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때렸다. 이때 퇴근하던 노동자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혼란스러워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죽어있는 노동자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죽음이 알려지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감추었다. 노동자의 가족들은 행방 불명된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 2주 뒤 경찰에게 시신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분이 부마민주항쟁의 첫 희생자로 인정된 유치준 씨이다.



시민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을까?



나는 쫓아오는 군인들을 피해 골목으로 숨었어. 군인에게 막 잡히려는 순간, 상복을 입은 처음 보는 여학생이 갑자기 나타났어.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집에 들어가자.”

“어. 어. 그래.”

군인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다시 나를 잡아가려고 했어.

“오빠! 먼저 들어가. 군인 아저씨. 지금 우리 집 제사 지내야 해요.”

여학생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군인들도 그냥 돌아갔지. 집에 들어가니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여러 명 숨어 있었어. 그 여학생 덕분에 모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 부산 시위에 참여했던 어느 고등학생의 이야기



경찰에게 막 잡히기 직전이었지. 급한 마음에 불꺼진 가게에 뛰어 들어갔어. 아줌마가 놀라서 쳐다보더군.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이소.”

아줌마가 나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이불 속에 숨겨 주셨어. 벌벌 떨며 숨어 있는데, 곧 경찰이 들이닥쳤지.

“방 안에 누구요?”

“남편인데, 열이 나서 많이 아픕니다.”

“흠...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경찰들은 그 말을 믿고 다른 곳으로 갔지. 나는 아줌마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네.

-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어느 시민의 이야기

활동1 부마민주항쟁 길을 따라서

1.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2.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수만큼 말을 옮긴다.



경남대 학생들의 시위

3.15의거 기념탑 시위

21

폴찌와 자리 바꾸기

벌칙!

38

한번 더!

5.18 민주화운동

17

시위대를 도운 시민

도착!

와!

6.10

토끼뿔 세 번 뛰기

아!

벌칙!

34

어떤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했을까요?
(힌트! 교재 9페이지를 보세요!)

32

유치준 씨 사망

15

시위대를 도운 학생

13

한번 더!



3



5



23



40

느낀점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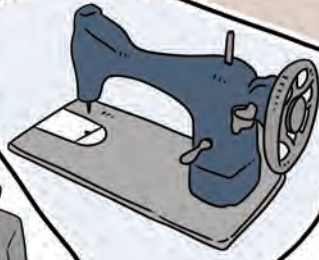


42

27



30



한 번 쉽!

쉬자! 에휴..



9

활동2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 부산 남포동에 구호를 외치는 사람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들의 생각을 말풍선 안에 써보자.

예시) 민희 : 사람들이 진짜 많네, 삼촌도 저기 있을까?



활동3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부마민주항쟁'을 소개하는 역사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신문	발행일 : 1979년 10월 일 요일	편집자 :
----	----------------------	-------

기사 제목:

내용 :

와의 만남(인터뷰)

기자 : 안녕하세요 신문 기자입니다

인물 : -----

기자 : -----

인물 : -----

기자 : -----

인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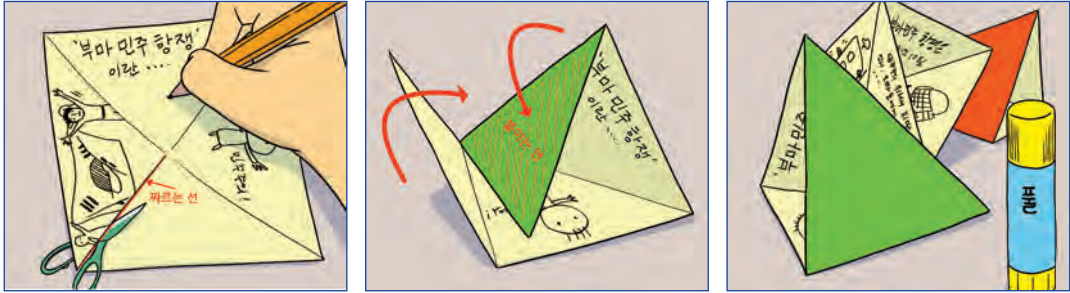
만화로 표현해요

인물 관련 사진 또는 그림

활동4 '부마민주항쟁'을 모르는 친구에게 '부마민주항쟁'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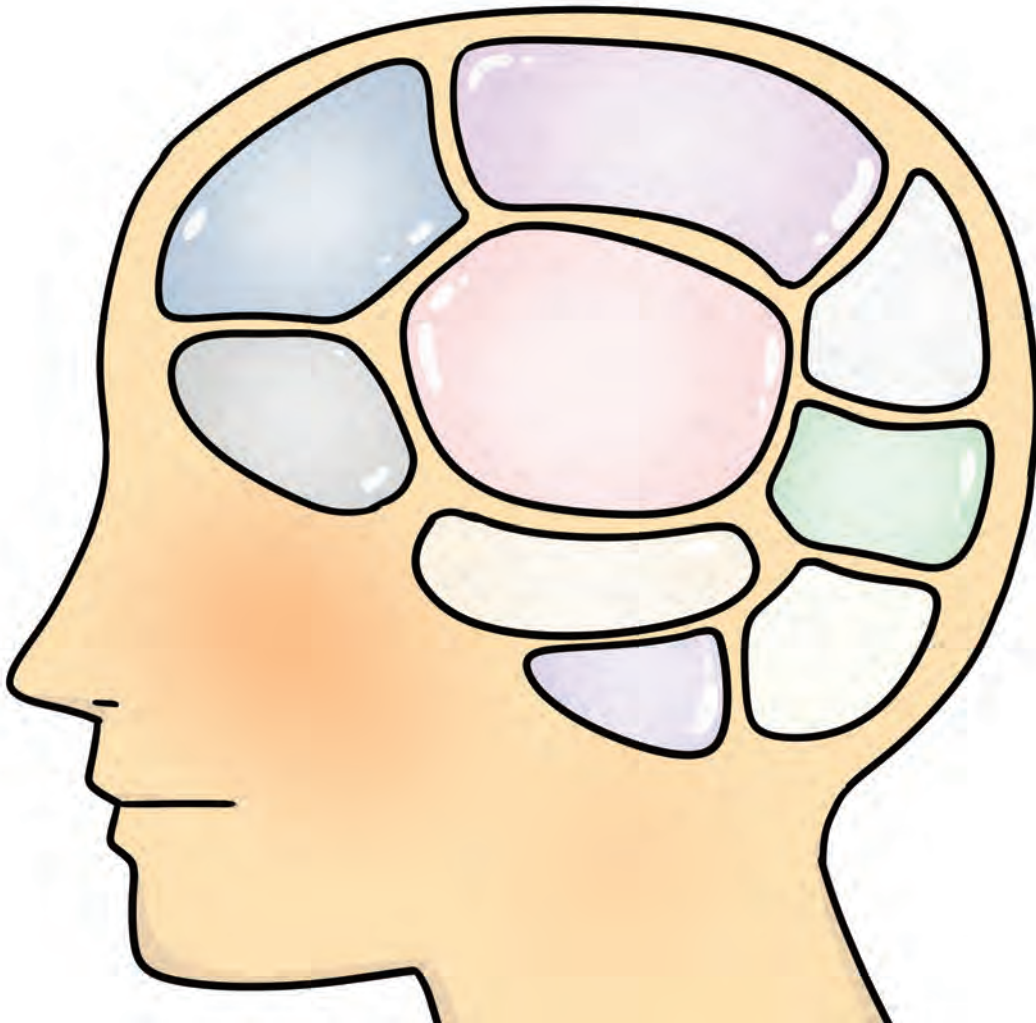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을 소개하는 피라미드책 만들기

- ①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 ②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내 생각을 짧게 기록합니다.
- ③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 붙이거나 그리도록 합니다.
- ④ 4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완성한 삼각모형을 붙여 피라미드책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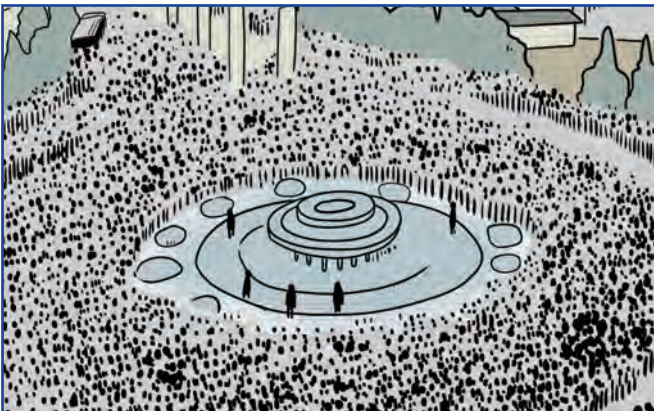
활동5 인물의 생각 파헤치기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그 인물의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활동6 그림으로 생각하는 부마민주항쟁

- ① 부마민주항쟁을 대표하는 그림 4장을 골라보자.
- ② 고른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 ③ 짝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자.



| 그림으로 생각하는 부마민주항쟁 |

- ① 부마민주항쟁을 대표하는 그림 4장을 골라보자.
- ② 고른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 ③ 짝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자.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는 부산 시민들

-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할 때 부산 시민들은 겁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하였다.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

-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권력을 참을 수 없어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며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경남대 학생들의 시위

- 학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교문 밖으로 달려 나갔다.

시위대를 도운 사람들 1

- 경찰이 시위대를 잡으려고 할 때 상복을 입은 여학생은 경찰의 위협에서 시위대를 구해주었다.

시위대를 도운 사람들 2

- 시위대가 경찰에 쫓겨 가게로 들어왔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도망 온 시위대를 숨겨 경찰에게서 구해주었다.

마산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들

- 경찰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1987년 6·10민주항쟁

- 시민들은 전두환 군사 정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를 막고 헌법을 고쳐 민주화를 이루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 광주 시민들이 민주 정부 수립과 전두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